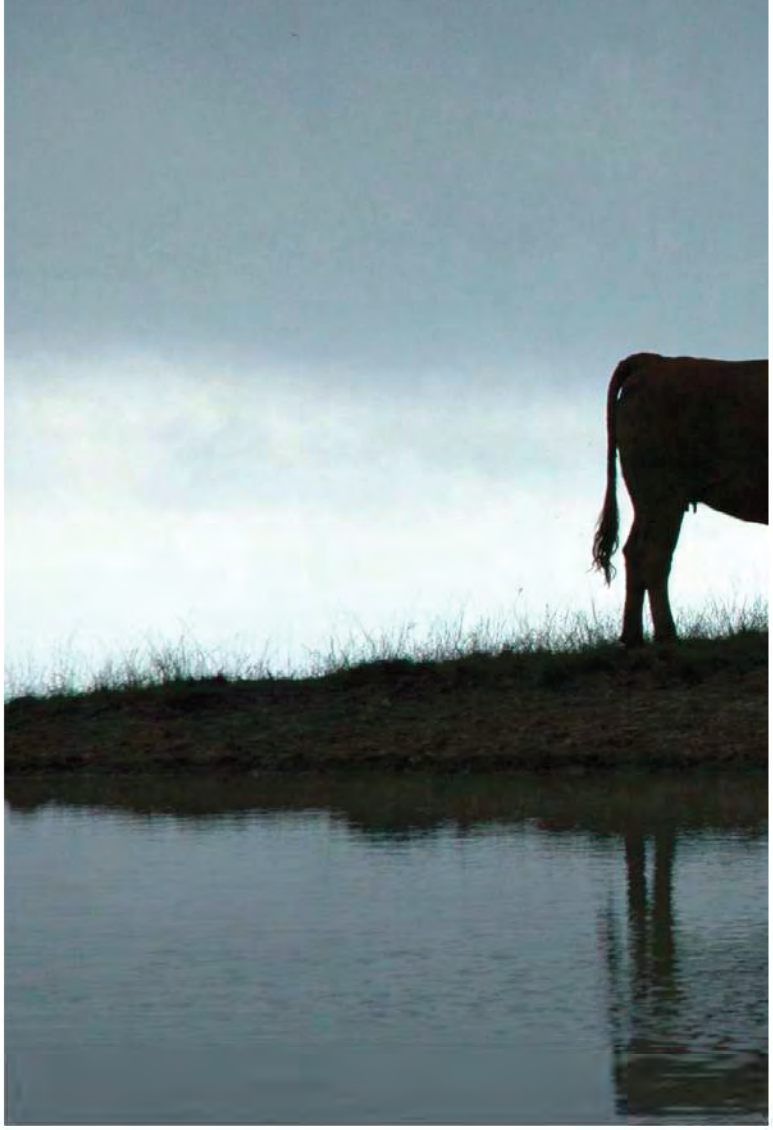
제자 삼기 위한 황소걸음



제자훈련 목회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목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꾸준함, 즉 '뚝심'이 아닐까 싶다. 제자훈련 목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 목회는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과도 같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저 길 끝에 목적지가 있음을 믿고 외롭게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 영주교회의 김용수 목사를 만났다. 그의 목회경력이나 영주교회에서의 제자훈련 사역을 보면 '황소걸음'의 뚝심이 드러난다. 그는 전형적인 전통 교회였던 영주교회에 7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제자훈련을 접목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던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정체되어 있었던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로 바꿔 놓았다. 김용수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황소걸음으로 꾸준히 제자훈련의 원칙을 지켜나갔기 때문이다. 바로 제자훈련에 대한 '뚝심' 때문이었다.

김용수 목사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신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대구 서현교회에서 16년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영주교회에 부임해 11년간 섬기고 있다.

부르신 곳에 머무는 사명자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질 못했어요."

김용수 목사의 사역을 소개한다면 '우직함, 뚝심'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김 목사의 부교역자 경력은 아주 간단하다. 입대 전에 학부생으로서 잠깐 개척 교회를 돕기도 했고, 제대 후 1년간 달성제일교회(현 반야월중부교회)에서 사역한 경험도 있지만, 결혼을 한 바로 다음 달 교육전도사로서 대구 서현교회에 부임한 이후 거기서 15년 6개월을 사역했을 뿐이다.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거쳤고, 담임목사 공석 시에는 담임목사 사역을 잠시 맡기도 했다. 서현교회 사역을 마치고 영주교회 담임목사로 2003년 6월에 부임했고, 지금까지 만 9년, 햇수로는 11년째 사역하고 있다. 그는 더 좋은 사역지, 경력에 도움이 될 자리를 찾아 떠도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영주교회에 담임목사로 지원하게 된 것도 서현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박순오 목사의 추천 때문이었다. 김 목

사는 그때만 해도 영주교회에 자신이 청빙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방 소도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주교회 담임목사에 지원한 사람만 40명이 넘었고, 그 중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신이 후보자로 남았고, 결국 담임목사 청빙이 결정되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15년 6개월의 대구 서현교회 부교역자 생활을 마무리하며 영주교회 7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 38세였다.

"처음 영주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 담임목사님이 나가신 이후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어요. 또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도를 하는데 영주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대뜸 동물 이름이 들어간 욕부터 하더군요. 그 정도로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던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 여기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그래도 인내를 잘 하는 편이고, 말이 없는 편이라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잘 맞는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가슴속에만 품었던 제자훈련 목회 철학

김용수 목사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다녔다. 외삼촌께서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모습에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얻었다.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겨울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사촌형들과 외삼촌의 영향에 의해 대신대 신학과에 입학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계명대학교에서 사학을,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공부한 후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가 제자훈련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 신대원에 방문한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듣고, 이것이야말로 참 목회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이 확신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16년을 넘게 기다려야만 했다. 그가 교육전도사로서 대구 서현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현교회는 철저하게 전통적인 심방목회를 고수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부목사 시절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의 부목사 사역은 한 마디로 '심방돌이'였어요. 9시에 출근하고 나면 9시 반에는 무조건 심방하러 나가야 해요. 그래서 오후 4시 전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교인들의 집을 심방하고 다녀야만 하는 시절이었죠. 물론 거기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에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았다. 신대원 시절 들었던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얻게 된 제자훈련 목회 비전을 16년 동안 전통 교회 부교역자 생활 가운데에서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그의 '뚝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부임 즉시 제자훈련의 터를 닦다

영주교회는 1967년에 개척된 전통 교회다. 김 목사가 2003년 6월 처음 교회에 부임해 보니 28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있기는 했지만, 전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전통적인 교회였다고 회고한다. 그 상황에서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영주교회에는 새가족들을 위한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7주간의 새가족 양육과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가족 양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위한 12주짜리 "성경기초교리반"(이후에 "성경교리반"으로 개칭)을 개설했다. 이 두 양육과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 목사는 이 두 과정이 모두 제자훈련을 위한 준비였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은 귀납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지나치게 성경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전통 교회에서 오래 사역해 본 경험상 일단은 연역적 방법으로 지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양육과정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새가족 양육과정과 성경기초교리반을 시작으로 제자훈련의 초석을 놓은 김 목사는 2004년 CAL세미나에 참석했다. 어떤 계기로 CAL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곧 "물론 신대원 때부터 제자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으니까요"라고 대답했다. 16년 동안 전통 교회에서 심방목회 사역을 해 왔지만 영주교회에 부임하자 가슴 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제자훈련 목회비전이 드디어 날개를 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담임목사가 되자마자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오직 제자훈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바로 CAL세미나부터 신청했지요. 부임한 다음 해인 2004년에 CAL세미나를 듣고, 2005년에 바로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영주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돌아볼 때, 당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한다. 김 목사는 혹시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냐는 질문에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체질개선을 하고

김 목사는 지금까지 영주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돌아볼 때, 당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한다. 김 목사는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체질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당회부터 제자훈련 하라" 고 조언한다.

자 한다면 무조건 당회부터 제자훈련 하라" 고 조언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리더십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당시 당회의 배려였음도 잊지 않았다.

"어려운 교회에 젊은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따라줬던 것 같아요.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장로 8명 전원이 제자반에 참여해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김 목사의 영주교회 초기의 제자훈련 사역 기틀이 이렇게 해서 닦여진 셈이다.

원칙을 지켜야 함을 배우다

장로 8명의 제자훈련을 마친 후에 1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새가족 양육과 성경기초교리반을 수료한 여자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신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김용수 목사는 1기 제자반에 대한 적극적인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

"아무리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룹이 있게 마련이죠. 1기는 주로 그런 여자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받게 된 거였어요."

처음 시작을 8명의 장로들과 했기 때문에 1기 훈련은 35명을 3개 여자 제자반으로 나눠 개설되었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으로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사실 김용수 목사는 1기 제자반이 3개나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고 당시를 회상한다. 전통 교회 담임목사로서 해야 할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면서, 제자반을 3개 반이나 운영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목회자들이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 최대한 훈련생을 많이 받으려 하게 되고, 거기서 선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김 목사도 이 경우에 해당되었다. 물론 김 목사는 1기 제자반을 대충 운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발의 원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다. 그는 2기부터는 남자반과 여자반 하나씩 두개 반만 선발해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1기 제자반을 통해 제자훈련 목회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킴으로써 난관을 극복한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김 목사도 영주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원칙을 준수하는 길' 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들을 헤쳐나갔다.

역시 제자훈련을 할 때 훈련생들이 토로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훈련 과제물이다. 특히 지방의 특성상 대도시에 비해 학력의 격차가 없지 않았고, 교회 내에서도 그 격차가 드러났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시 독서 과제물과 큐티 과제물이었다. 아무래도 학력이 높은 성도들은 잘 따라오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너무 어려워했다. 김 목사는 이런 학력 격차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른 타협 방법을 찾지 않았다.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에 요구한 수준을 낮추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매 기수마다 몇 명씩 탈락자가 생겼지만, 훈련생들이 못 따라온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다.

1기 훈련생이었던 박선희 권사는 "저희 반은 7명으로 시작했다가 5명이 수료했어요. 저도 훈련받을 때

남편은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낮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밤에 훈련을 받는 것이라 출석 자체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봐주시지도 않고 써와야 하는 숙제는 많고, 기도, 성경 암송 등등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시간을 내서 양육하시는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경북전문대 교수로서 2기 제자훈련을 받은 이준우 집사도 "제자훈련 숙제는 거의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한다. 김 목사는 이곳 지역에 맞춰서 과제물 수준을 조금 낮췄다고 말하지만, 정작 훈련생들이 느끼기에는 결코 낮은 수준의 과제물이 아니었던 셈이다.

특별히 최근에 수료한 6기 훈련생들은 김용수 목사에게 큰 어려움이었다. 너무 결석이 많았다. 한두 명이 결석을 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탈락시키고 가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결석을 자주 했다. 김 목사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이 '제자반을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 하는 생각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목사는 6기 제자반 모두를 그해에 수료시키지 않고, 그 멤버 그대로 1년 더 제자훈련을 받게 했다. 결국 제자훈련을 2년간 받게 된 것이다. 7기 제자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원망의 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김 목사는 적당히 하고 수료시키는 훈련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6기 제자훈련은 '아주 특별한 제자반'이 되었다.

또한 김 목사는 함부로 제자훈련을 맡기지 않았다. 제자훈련은 담임목사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김 목사는 누구든 제자훈련 목회의 정신을 공유한다면 함께하고 싶어 한다. 전통 교회 담임목사 역할과 제자훈련을 병행하다보니 부교역자가 제자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면 아무래도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 교회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 부교역자가 없었다. CAL세미나도 보내고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부교역자와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제자훈련에 대해서 좀 알게 되어 맡길만 하면 다른 사역지로 나가버렸다.

그래도 김 목사는 "이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 그냥 시켜도 잘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교역자에게 제자훈련을 맡기지는 않았다.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자훈련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부교역자들에게는 큐티 학교, 전도 학교 등 단기간의 과정만 맡기고, 장년 제자훈련 두 반과 사역훈련까지 세 반을 김 목사가 직접 인도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 영주교회에서 초등부와 청년부를 맡고 있는 박재훈 강도사가 청년 제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이 다 대도시로 빠져나가 버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교회의 청년부는 약 4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와 훈련을 하고 있다.

또 1기 제자훈련을 받은 박선희 권사가 초등부 부장을 맡게 된 후로부터 어린이 제자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박권사는 "그 아이들이 한 시간 반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신기하다"고 말한다.

특히 김 목사는 '사역보다 훈련이 먼저'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물론 김 목사의 부임 이전부터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아온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고서도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김 목사는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으로 이끌고, 먼저 훈련을 받은 후에 교회의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김 목사는 사역은 훈련의 결과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사역훈련은 4기째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교리반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라는 권면은 하지만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사역훈련을 받으라는 권면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제자훈련은 신앙의 인격을 다듬는 데 초점을 두는 과정이기에 권면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사역훈련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역훈련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소그룹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 제자훈련은 신앙의 인격을 다듬는 데 초점을 두는 과정이기에 권면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인 사역훈련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의 원칙 중심 제자훈련의 증거는 소그룹 교재로 다락방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다락방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담임목사의 설교를 요약한 교재나 다른 가벼운 수준의 교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김 목사는 처음 소그룹을 시작할 때부터 다락방 교재를 사용해 소그룹 리더로 하여금 직접 말씀을 해석하고 귀납적으로 묵상하며 나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쉽지만은 않은 다락방 교재를 사용하다 보니 이를 인도하는 리더들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1기 훈련생이었던 권영실 집사는 "소그룹을 하다보니 '알게 되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리더 모임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 이렇게 소그룹을 하기 전에는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장통이었던 거죠"라고 고백한다.

한 구역씩 변화를 이끌어가다

이제 6기 제자반을 수료하고, 7기 제자반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영주교회가 완전히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의한 교회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아직까지 전통 교회의 구역예배, 즉 공과를 나눠주면 구역장이 예배드리고 앉아서 설교하듯이 공과를 읽어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구역예배가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것이다.

김 목사는 '사역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역장(순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으로 파송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영주는 지역정서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고, 그러한 분위기는 교회 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에 비교적 어렵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기본 조직인 구역체계를 바꾸기는 정말 어려웠다.

김 목사는 하루아침에 조직을 바꿀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점진적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굳이 기존의 성도들에게 문화충격을 줘 가면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김 목사가 선택한 방법은 훈련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귀납적 나눔이 있는 소그룹을 하나씩 확대시키는 방법이었다. 전통적인 구역 소그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락방 교재를 사용해 귀납적 나눔을 하는 한 구역을 따로 시작했다.

사실 하나의 특별 구역을 시작하는 데에도 당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당회원들이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될 것에 동의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한 번 실험을 해 보자"라는 식으로 당회를 설득해야 했다.

이후에는 사역훈련을 수료하고 구역장으로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구역 식구를 주지 않고, 직접 개척하는 방식으로 소그

영주교회는 교회 내의 사역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룹을 만들어 갔다. 무디(D. L. Moody)가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학생을 받지 않고 시작했던 것처럼, 사역훈련을 받고 구역장으로 파송되면 자기 소그룹을 개척해야 한다.

그래서 사역훈련을 통해 세워진 구역장이 이끄는 구역의 이름은 '무디 1구역, 무디 2구역'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구역장이 직접 새 가족을 접촉하거나 전도를 해서 자기 구역으로 이끌게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 '무디' 구역을 비롯한 소그룹이 10개가 되었다. 지금 영주교회의 구역은 총 24개인데, 14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역이고, 10구역은 다락방 교재를 사용하여 귀납적 나눔을 하는 구역이다. 아직 이 두개의 소그룹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울 때가 많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구역에 속한 사람들의 불만 섞인 반응이 없지는 않다. 김 목사도 그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목회에 지장이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훈련을 받은 구역장들이 겸손하게 전통구역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1기 훈련생으로서 지금 구역장을 맡고 있는 권영실 집사는 "전통구역이 아닌 새롭게 생긴 소그룹이

교회 내에서는 늘 마지막 순위이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불만스러운 표정은 없었다. 이렇게 먼저 섬기는 구역장이 있었기에 이 때문에 교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다

영주교회는 교회 내의 사역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부임하면서 영주교회가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사회복지 사역에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 그래서 부임하던 첫 해, 2003년부터 '꿈나무 학교'를 시작했다. 꿈나무 학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어린이들에게 공부와 음악, 체육활동과 함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이다.

이후 제자훈련이 진행되면서 영주교회는 사랑의 도시락,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복한 홈스쿨, 셋째 아이 출산 격려금 지급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더 확대해 나갔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수료했으나 사역훈련은 받지 않은 성도들, 그리고 사역훈련을 마치고도 구역장 사역을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이나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유도했다.

'사랑의 도시락' 사역은 60인분 정도의 도시락을 싸서 주변의 독거노인과 최하위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역이다. 또한 교회 성도와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이 자매결연을 하게 해서 성도들이 매월 한 번씩 그들을 찾아

가 청소나 음식 마련을 도와주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돕고 있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선한 일을 하자는 운동인 '겨자씨 운동'이 교인들 사이에서 펼쳐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선희 권사는 "홈스쿨, 미용, 독거노인, 사회를 섬기게 된 것 모두 제자훈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겨자씨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운동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었죠"라고 말한다.

영주교회가 이런 작은 사역들을 꾸준하게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이웃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다. 11년째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교회에서 노인정을 방문해도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영주교회에서 온 줄로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김 목사는 이를 단지 영주교회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지역의 교회들이 거의 전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랑 같지만 제가 여기 영주교회에 부임해서 영주 지역에 전도 붐을 일으킨 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하는 교회"

영주교회에 부임한 후, 지금까지 김 목사는 거의 쉴 수가 없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월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화요일 제자훈련, 수요일 리더모임, 목요일 사역훈련, 금요일 철야기도회, 토요일 주일설교 준비로 저녁시간이 꽉 차있을 뿐 아니라 제자반 두 개와 사역반의 과제를 직접 체크해야 하고, 각종 전도활동과 사회복지활동에도 소홀할 수 없다.

"솔직히 이번에 6기 제자훈련을 마치면 제자훈련을 좀 쉬고 싶었어요. 그동안 안식년을 얻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까지는 아니라도 몇 달 안식기간을 갖고 제자훈련을 쉴 수 있길 원했죠."

김인식 집사는 "우리 반은 주일 저녁반이었는데, 목사님이 주일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다 인도하신 후에 또 저녁에 훈련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훈련생 7명이 목사님의 피곤하신 모습을 보면서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과 목사님의 열정을 보니 나태한 마음으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김 목사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김 목사는 결국 쉬지 못했다. 훈련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안식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럼 제자훈련이 없어지는 것이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결국 7기 제자훈련을 모집하게 되었다.

김 목사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280명 정도 출석하던 영주교회는 최근에 3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타 지방에서 이사를 오는 수평이동은 있을 수 있어도 주위 교회 교인들이 옮겨오는 경우는 없다. 교회가 가족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성도보다 떠나는 성도의 숫자가 더 많고, 여기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이다. 실제로 KTX가 개통되었을 때에는 한꺼번에 26가정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빠져 나가는 일도 겪었다. 그럼에도 영주교회는 김 목사의 부임 이후 숫자가 꾸준히 늘어왔다. 예산도 거의 두 배가 뛰어 지금은 7억 2천 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영주교회가 인원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솔직히 잘 양육해서 일꾼으로 키워 놓은 사람이 떠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 때에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꼭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러니 그냥 감사할 뿐이죠. 생각해 보면 여기서 훈련받았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잘 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평신도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수평이동을 생각하기 어려운데다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은 영주 지역에서 인원과 재정 면에서 이런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모두 제자훈련의 힘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준우 집사는 "영주 지역은 전통적인 유불선 문화가 만나는 지역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매우 약하고 전도가 힘들죠. 게다가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젊은 사

평신도들이 느끼는 것은 다르다. 수평이동을 생각하기 어려운데다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은 영주 지역에서 인원과 재정 면에서 이런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모두 제자훈련의 힘이라고 느끼고 있다.

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 사이 재정이나 성도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청년부가 저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여기 잠시 왔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다가 2006년에 다시 왔는데, 그동안에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지 양적 변화만이 아니고 교회 분위기도 달라져서 모두가 하나된 것 같이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실 집사는 "진짜 전도를 해 보면 단지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관계에 위험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전도는 정말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사실 제자훈련은 제 신앙의 한 획을 긋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주입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나누며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제자훈련의 힘은 양적인 면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북전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인식 집사는 2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만 참석할 뿐이었던 전형적인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그가 제자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교회에서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역시 교수로 일하는 이준우 집사는 이전에는 세상에서의 삶 따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따로의 삶을 살았으나 제자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부족하나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며 제자훈련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 감사해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뿐 아니라 영주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 축복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교회 전체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영주교회에는 문화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식당 설거지를 제자훈련을 수료한 남자 집사들이 감당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차량을 세차하고, 마당을 청소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런 모든 변화들 가운데 김용수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변화가 있다. 바로 영주교회의 당회원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영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하는 교회다"라고 답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 목사는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드러냈다. 김용수 목사는 의미심장한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요즘 다락방 교재로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수록 마지막까지 줄어들기는커녕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가더군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지요. 하나님의 세력을 방해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김용수 목사가 이끄는 영주교회의 제자훈련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특유의 '뚝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황소걸음처럼 옮겨가는 김 목사의 모습을 보면, 분명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영주교회가 이후 지역의 제자훈련 모델 교회로써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해 본다.

〈박희원 목사〉